

# “현지 사찰과 파트너 방식의 개발 필요”

## 불교사회복지대회...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종교 역할’ 포럼

1991년 정토회 산하기관 한국JTS가 인도 등게스와리에서 불가촉천민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이후 관련 사업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불교단체들은 33개로 늘어났다. 2012년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94개 회원단체를 살펴보면 종교기반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76%에 달할 정도다. 국제개발사업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종교계 해외지원활동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1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 종교·시민 NGO단체들이 참석해 공론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손형상 경희대 글로벌 거버넌스학 교수는 “구호와 복지에서 시작된 해외NGO사업이 변화를 거듭해 주민운동 지위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한국 개발 NGO의 경우 전문적 역량개발 미진, 대안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로터스월드 민정희 사무국장 역시 “불교계 해외사업의 경우 대부분 교육, 보건의료, 생활환경개선 분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에만 머물러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학교 건립과 식수시설 지원같은 인프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기획 과정에서 후원자 욕구를 지나치게 고려하고 실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사업현장역시 대부분 캄보디아, 미

안나, 몽골 등 아시아 불교국가에 한정돼 있다”며 “현지 불교기반단체나 사원 등과 파트너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문화적 공감대를 갖춰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타종교의 사례도 공유됐다. 민경일 바보의나눔 사무총장은 대표적 가톨릭 개발협력 단체인 한국 가리타스를 예로 들고 “현지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는데 있어 세계 165개국의 연합으로 이뤄진 국제 가리타스의 방대한 네트워크

### 국제NGO 중 종교단체 비중 높아져 전문성 미진·대안 발굴 부족 한계도 불교 경우 학교건립 등 인프라 집중 스리랑카, 사르보다야운동 모델 제시

를 활용하고 있다”며 “가리타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내 가톨릭 NGO단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각 NGO단체별로 전문성을 나타내는 분야가 따로 있다”며 “사업별로 국내 단체들끼리 협력한다”고 말했다.

현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성을 낮출수가 있어서다.

포럼 참석자들은 종교계가 주도하는 국제개발사업에서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11월 14일 열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종교역할’ 포럼현장. 사진=박재완 기자

국제개발협력 시민운동단체인 ODA Watch 한재광 사무총장은 “몇몇 종교의 경우 수혜자들의 영적변화와 개종을 목표로 삼는 등 개발을 개종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기업, 단체 및 정부 자금이 후원자의 의도와는 달리 활용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국제사업 모금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만 그치는데서 벗어나 자신들의 활동이 종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개발 활동에 비해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교단체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 내용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생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불교적 가치와 원리에 따라 스리랑카의 재건을 위해 봉사하는 사르보다야 운동과 아시아 불교국가 지역에 지부를 만들어 지역의 자립적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사방승가운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방승가운동은 무담보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기구 붓다뱅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사를 위해 밭새, 소 등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립적 마을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는 손형상 교수, 월드비전 김성태 본부장, 민경일 바보의나눔 사무총장, 민정희 로터스월드 사무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유정길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학 교수,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복지대회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선정했다.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중순 스님을 비롯 총 1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연꽃마을, 베트남 지원기금 마련 음악회

김덕수·김영임·안숙선 등 출연...11.20 서울 국립극장

국제연꽃마을(회장 각현)이 베트남에 건립중인 종합복지타운 사업의 일환인 ‘세종학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11월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국립극장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박범훈 국제연꽃마을 총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회로 승무 김묘선, 민요 김영임, 판소리 안숙선, 파리 최경만 명인이 열띤 공연을 선보인다.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도 함께 열린다. 후원티켓은 1좌석당 10만원이다.

국제연꽃마을은 월남전 당시 가장 치열

한 전투가 벌어졌던 베트남 중부 광남성 지방에 한국형 교육복지타운 건립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복지타운 내 청소년 교육기관 세종학당 건립을 시작해 현재 2020년 완공 목표로 공사중이다. 이외에도 국제연꽃마을은 베트남 현지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지원, 안면장애아동 무료수술지원, 현지 학생 장학금 지원 및 의료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베트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불교복지인으로서의 삶’ 서원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11월 7일 후원사찰 미타사 정수암에서 복지관 부설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의 계사로 진행된 수계법회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부설기관인 연꽃어린이집, 정수데이케어센터, 서울데이케어센터,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등 4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발원했다. 수계받은 직원들은 앞으로 불교복지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배현진 기자

## 독거노인 훈훈한 겨울맞이 잇달아

송산노인복지관, 후원물품전달·봉사활동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입)은 훈훈한 겨울나기를 위해 독거노인 어르신 후원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연이어 진행했다.

11월 12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후원으로 의정부 지역 홀몸노인 80명에게 참기름, 김, 참치, 라면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들을 전달했다. 어르신들의 영양결핍방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세트였다.

한편 11월 10일에는 롯데슈퍼와 함께 독거노인 4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청소서비스를 실시했다.

롯데슈퍼 직원 20명은 5인 1조로 독거노인 1가정을 찾아 마당·화장실·집안 청소를 하고 각 가정에 쌀, 라면, 휴지, 담요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고산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평소 무료 관절염과 허리통증으로 물품을 정리하고 청소하기가 힘들었는데 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일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롯데슈퍼 직원들이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찾아 후원물품 전달을 했다.

며 “후원물품 전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유찬희 롯데마트 수도권2부문장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따뜻함을 전하자니 내부 눈이 있었다”며 “오히려 독거노인분들이 봉사자들에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아 우리 마음도 따뜻해졌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 대치노인복지센터 개관 3주년 기념 축제

개관 3주년을 맞이한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손화정)가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대치2문화센터 다목적공연장(대치2중주민센터 3층)에서 지역사회 축제장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대치노인복지센터에 기여해온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표창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대치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작품발표회 ‘이음예술제’도 열린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가곡, 라인댄스팀이 참여해 1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또한 연꽃차 다도시연회와 사찰음식 체험행사도 마련되며 행사 후에는 경품추첨과 기념품 증정도 이뤄진다.

배현진 기자

## 日 주교단, “지난 상처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한일주교교류모임 11월 10일 나눔의 집 방문 ‘눈길’



11월 10일 나눔의 집을 방문한 한일주교단.

“일본이 여러분들에게 끼쳤던 상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가톨릭 성직자 10명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 주교단이 11월 10일 경기도 퇴촌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한일천주교교류모

임 20회를 맞아 방한한 일본 주교단이 첫 일정으로 나눔의 집 방문을 선택한 것이다.

주교단은 나눔의 집 입안부 역사기념관을 둘러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7명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일본 오사카 대교구장 마에다 마요 대주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권과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된다”며 “위안부는 시대의 아픔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에다 주교는 할머니들과의 만남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쓰우라 고로 보좌주교 역시 “일본 내 각 교구가 지난 과오를 고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가 하면 일본 가톨릭신문 편집장인 세가와 와

이지 주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신문에 실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초청받았던 김군자 할머니는 “제가 말은 해도 듣지는 못한다. 위안부 생활할 때 얼굴을 맞아 고막을 다쳤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천주교에서 저희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일주교교류모임은 1996년 공통된 역사 인식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자는 뜻을 모아 발족한 ‘한일 교과서문제 간담회’에서 시작돼 지난 2004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어’를 펴내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안내

### 신청기한 (2014년 12월 31일까지)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피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 1 신청기한 : 2014. 12. 31. 까지

-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2)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 1)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 3 신청서 접수기관
  -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 (09:00 ~ 18:00)
    -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 나. 주소 : 우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2 신청서 제출서류

-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 2) 피해경위서 1부
  -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2) 피해경위서 1부
-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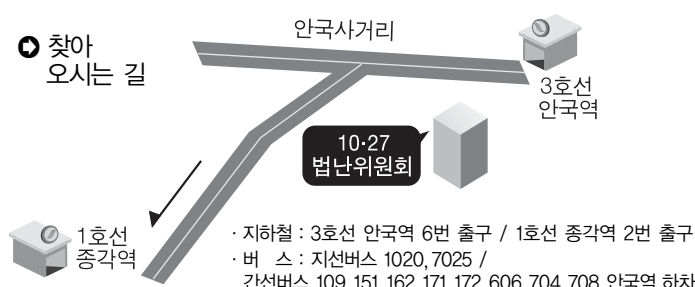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간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 4 심의·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어부심사사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5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화 (02)738-6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7법난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자료범위 : 법난 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 법 : 전화, 방문, 우편제출 등
- 활용계획 : 향후 건립될 기념관·전시관 내 전시 및 자료발간 등
- 기 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관훈동) 동덕빌딩 9층  
 연락처 : 02)738-6210